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위해 열린 <임원전지훈련>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기로 다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과 시간,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될 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인생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새해를 맞아 광림교회 성도들은 1월 12일 둘째주일을 청지기주일로 섬기며 청지기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다.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위원장들이 임명되고 성도들은 올 한 해 봉사하게 될 부서에 이름을 올렸다.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고전 4:1)"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우리 안에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청지기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림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이 습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영향력를 세워나가야 한다"며 이것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했다.

선교와 전도 위해 기도하라

광림교회는 올해 2020년 표어를 "복음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사 52:7)로 정했다. 2020년 4월에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가 봉헌될 예정이며, 광림의 청년들은 <해외 100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현재 지구촌 곳곳은 수많은 분쟁과 분열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석 담임목사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화합하는 것이며, 이 평화로 나눔과 분쟁과 다툼의 모습이 사라질 것을 소망하며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광림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매년 초 <임원전지훈련>을 연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임원전지훈련은 저녁 7시 30분부터 본당 대예배실에서 1차 집사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

(수)~10일(금)까지 열렸고, 2차는 권사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1월 15일(수)~17일(금)까지 열렸다. 직분자들에게는 교회의 각 부서에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새로 직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으로 권면했다.

올해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새롭게 부름 받은 청지기들은 또 다른 각오를 하게 된다.

상담선교위원회 총무 정조남 신천권사(16교구)는 성경 속에 숨어 있는 보화를 찾는 청지기와 교회 안에 성도의 구제와 말씀, 교육을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청지기 사명을 언급하며 "부족한 저를 세워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광림 교인들을 위한 상담선교회 총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광림의 청지기들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며 삶의 부요함이 넘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안미영 기자 amy1216@sogang.ac.kr

2 광림의 강단 한 중보자의 간절한 간구
3 광림 스토리 임원전지훈련, 청지기 사명 다짐
4 하나님을 만나다 사랑으로 돌보는 광림노인전문요양원
6 각 위원회 위원장 비전 맡겨진 사명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7 신천임원 간증 신천임원, 하나님 앞에 헌신
8 복음 김정석 담임목사, 국민일보 대담

한 중보자의 간절한 간구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2:20~35)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절하며 난장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하나님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출 32:7),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9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내려 보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굽힐 줄 모른다는

> "그러나 이제
>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 원하건대 주께서
> 기록하신 책에서
> 내 이름을
> 지워 버려 주옵소서"

말씀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출애굽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노예로 살 것 같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악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ㅇ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출 32:4)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상화 한 것입니다. 2천 년 전 금송아지는 가나안에 알려진 다산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강력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을 거두십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민족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20~35

20.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21.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5.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33.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34.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430년 간 긴 노예생활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11절)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에 비유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허물도 덮어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덮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자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10절) 이 말씀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딜(deal)을 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진멸하고, 너만은 살려줄 테니 너와 네 자손은 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11~12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 이웃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주십니다.

셋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는 꿋꿋하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를 찾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위기, 내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며 진리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30

새 사람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라

〈임원전지훈련〉 김정석 담임목사, 이기우 목사, 박성민 목사 귀한 말씀 전해

청지기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2020년 〈임원전지훈련〉 1차가 1월 8일~10일(집사), 2차가 1월 15일~17일(권사)까지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임원전지훈련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올해 목회 방침과 광림교회 임원으로 갖추어야 할 사명을 훈련받는 자리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사야 52장 7~8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존재로 축복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되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섬김과 나눔의 손길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순종으로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라"고 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고 전했다. 또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창 22:1~19)이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 사명이다.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 형통이고, 이것은 나누기 위함이다. 영원한 형통은 구원이며, 형통한 자의 모습은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고,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전진하여 지금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다. 또한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은 "말씀의 순종과 경외, 예배, 기도의 법칙을 지켜 예배자의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고 전했다.

이번 임원전지훈련 첫날 초청강사로 이기우 목사(감람교회 담임), 박성민 목사(CCC 대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25교구 이은석 성도와 12교구 이재연 성도의 간증으로 큰 은혜를 나눈 임원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일치된 순종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장로세미나〉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장로

〈2020년 장로세미나〉가 1월 21일(화) 광림수도원 1층 중예배실에서 개최되었다.

54명의 시무장로가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이번 장로세미나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특강과 성찬식, 기획위원회 회의, 장로월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김정석 담임목사는 본이 되는 장로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하며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장로월례회에서는 장로들이 금년에 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였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은퇴장로 9명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은퇴장로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여 시무장로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었다. 끝으로 2020년에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장로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하였다.

박영준 장로(뉴스레터위원장)

〈2020 성가대 수련회〉 영의 문 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성가대원의 자세와 찬양의 목적 배운 시간

광림교회 음악위원회(위원장 : 장대진 장로)는 광림수도원에서 지난 1월 11일(토), 오후 3시 4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2020 성가대 수련회〉를 열었다.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완공된 광림수도원의 첫 행사로서, 미가엘성가대와 앙상블, 나사렛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남성성가단, 여선교회성가대와 앙상블, 광림남교회 가나안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새하늘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광림서교회 시온성가대, 광림북교회 시온성가대 등 광림의 모든 성가대원,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수련회 1부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시편 108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찬양이 어떤 모습의 음악인지를 설명했다. "예배에서 성가대가 입례송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영적인 문을 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성도는 감사와 회개, 간구와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린다. 예배에서의 찬양은 자신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왕되심, 축복하심을 칭송하고 감사드리는 신앙고백이다"라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5~17절을 통해 찬양의 목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나사렛성가대 지휘자 김지훈 집사와 갈릴리성가대 솔리스트 이선영 권사의 특강이 있었다. 김지훈 집사는 에베소서 1장 3~6절 말씀을 들어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며 성가대원의 자세와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에 대해 강의했다. 또 이선영 권사는 실제적인 화성으로 좋은 찬양을 위한 호흡과 발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가대원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찬양의 의미와 성가대로서의 본분을 깨달었던 수련회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되새긴 성가대원들은 1월 19일(주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2020년 성가대 임명예배〉를 드렸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포토 뉴스

국방부 감사장 수여

12월 31일(화), 김정석 담임목사가 장병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기여한 공로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랑부 총회 및 교사임명식

1월 19일(주일), 웨슬리관에서 사랑부 총회 및 교사임명식이 있었다.

웨슬리문화센터 서양화 클래스 전시회

1월 12일(주일)~19일(주일)까지 장천갤러리에서 웨슬리문화센터 서양화 클래스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1/12	청지기주일
1/15~17	임원전지훈련 2차
1/18	강남지방 장로교육
1/19	성가대 임명예배
1/19	사단법인 광림 총회
1/21	장로세미나

감독 동정

1/12	광림남교회 주일예배
1/15	일본 요도바시교회 미네노 목사 면담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사무엘하 23:3~5)

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후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국가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동기들은 취업으로, 대학원 진학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졸업 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고시공부를 하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잘 안 될까'라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고자 하는 학교에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긴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에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때 읽은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3~5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불안하고 긴장되었던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신다는 생각에 가볍고 든든한 마음으로 면접장소에 갔습니다.

면접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생생하여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에 구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의 계획이 실패한 지금도 그분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음을 되새기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진로를 선택하여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책임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오늘 도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보람 집사 (유년부 교사)

[찾아가는 인터뷰 15회]

현 아브라함 전도사 (중국어예배)

한국에서 열매 맺는 중국선교 많은 기도응답 있어

"중국어예배는 주일 오후 3시에 웨슬리관 5층에서 드려집니다. 중국어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로, 중국 정부에서 교회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동시에 한국 성도들에게는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중국 성도들의 신앙을 보며 한가족으로 교제를 나누며 중국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현 아브라함 전도사)

현 아브라함 전도사(이하 현)는 중국 교포 4세로, 중국에서 10년간 예수전도단 간사로 섬겨오면서 제자훈련, 교사 양성, 가정상담자 양성 및 교회 목회를 하다 한국에 신학유학을 오게 되면서 광림교회 중국어예배를 맡게 되었다. 그의 한국에서의 중국선교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중국인들

현 : "중국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교회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는 쉽지만, 주일에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며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신앙 성장이 상대적으로 늦은 경우가 흔합니다."

중국 관광객, 유학생들 전도하며 복음 전해

현 : "중국어예배는 교회 근처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중국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중국 신학생들과 함께 주일날 교회 근처 성형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전도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여러 명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전도 열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하나님께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달만에 세 명의 여성분들이 교회 권사님의 안내로, 또 서로 소개해서 중국어예배에 오게 되었고, 그 중 두 명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에 가서도 꼭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서 예배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중국 씨안에서 온 청 자매님은 중국에서 생활이 가장 힘들 때, 한국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삶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년 사이 기도 응답으로 큰 딸이 한국 유학길이 열리면서 대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아들도 한국에 유학 와 대학을 마쳤고, 한국 형제와 결혼한 큰 딸을 따라 둘째 딸과 온 가정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유학생인 장 형제와 라 형제는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현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새 집도 구하고 유학생활을 적응해 가면서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다고, 광림교회에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어예배에 나온 한 분 한 분은 모두 각자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소그룹별로 설교 본문이 속한 장을 다시 같이 읽고 적용점들과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줍니다. 주중에는 카톡방을 통해 각자의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를 주고 받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 성도들을 위하여 중국어 성경공부와 찬양 교실을 운영한다. 중국어 찬양을 배우고 성경 본문을 한국어로 설명을 듣고 적용점과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중국어예배는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고 전하는 공동체로 한국 땅에서 중국선교를 이루어 가고 있다.

박신애 기자 milkpsa123@naver.com

우리 교회 이래서 좋아요

〈광림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 필요한 어르신들 사랑으로 돌보다

1991년 광림교회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무의탁 어르신과 은퇴한 교역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집'을 세웠다. 그러다 이듬해 대한적십자와 외무부의 주선으로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독신어르신을 모시는 보금자리로 바뀌게 되었다. 92년부터 96년까지 모두 155명의 사할린 동포들을 받아 들였는데, 이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남에 따라 '사랑의 집'은 2002년부터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광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다시 한 번 탈바꿈하게 되었다.

입소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에서 시설급여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며, 현재 요양원에 있는 82명의 입소자 중 63명이 치매 환자들이고, 57명이 80세가 넘은 어르신이다. 사할린에서 귀국한 동포 중 96세와 95세 두명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간호사 4명을 포함하여 총 56명이 근무하는 이곳에서는 어르신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맞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압, 맥박 등 매일 매일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다. 광림교회에서는 2개 선교구 성도들이 2달에 한 번 찾아와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 특히 리브가선교회와 호스피스선교회에서 매달 1회 이곳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12만평의 대지에 최첨단 물리치료실, 기계욕실 등 쾌적한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돌보는 직원들 또한 요양원의 사명인 '키워주신 것처럼 섬기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맑은 숲'이라는 보호자 자체 모임을 1년에 2번 갖고 더 나은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정성의 결과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등에서 각각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매번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절반은 가족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이들의 마지막도 직원들이 보살펴주고 있다.

요양원의 홍종환 원장은 "모든 장례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들을 천국문까지 모신다는데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요양원에 개별 후원해주는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2020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아동부 '변화의 주인공' / 중고등부 '요나두? 야나두!'

하나님을 전했던 요나처럼 담대해집니다!

광림 교회학교는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와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열어 2020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한다. 교회학교의 핵심 비전인 'LIGHT 2020' 커리큘럼 중 변화(Transforming)에 초점을 맞춰 '일치된 순종을 통한 생명의 변화'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요나서 1장 17절~2장 1절을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각과 선택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했듯 우리 자녀들도 뜨겁게 기도하며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동부는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유년부는 1월 31일(금)~2월 1일(토), 초등부는 2월 8일(토)~9일(주일), 소년부는 2월 7일(금)~9일(주일), 광림교회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기도와 말씀, 레크리에이션, 코스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요나두? 야나두!'라는 주제로 2월 8일(토)~9일(주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림수도원에서 열린다. 김기승 목사(일산 세길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마음이 하나님 품에서 쉼을 얻고 변화의 결단을 하도록 돕는다.

초등부 심경배 어린이는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자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겨울성경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면서 친해지고 함께하니 재미있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참 좋았어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데 또 다시 기대가 되요"라고 말하며 겨울성경학교를 기다린다.

중등부 김태우 교사는 "이번 겨울수련회는 '요나두? 야나두!'라는 요나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 회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던 요나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한 뼘 더 자랄 것이다.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는 아이들 생각과 마음에 거룩한 씨앗으로 뿌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 가정과 학교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나눔의 집> 기부 의류 통해 국내외에 따뜻한 사랑 전해

이번 달에도 성도들이 후원한 물품 청년들의 '미얀마'와 '우간다' 선교에 사용할 예정

'따뜻한 집'에서 '나눔의 집'으로

2014년부터 6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따뜻한 집(Charity house)'이 1월부터 '나눔의 집'으로 새롭게 바뀐다. 광림교회 밀레니엄공원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따뜻한 집'은 그동안 광림교회 성도들이 기부한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 가방, 책 등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이곳에 들어온 물품들은 자원봉사로 수고하는 권사들의 손길을 거쳐 깨끗이 세탁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그 수익금으로 미혼모 복지시설과 작은 교회들, 그리고 불우한 이웃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솔트 플랜에 참여 중인 미자립교회 바자회 물품으로 보내지거나 해외 선교를 나가는 청년들을 통해 여러 선교지에 보내져 옷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해외선교 활성화를 위해 후원은 의류로만 한정하고, 기증받은 옷들은 정리하고 분류된 후 박스에 담아 국내 솔트 플랜 교회들과 몽골, 베트남, 미얀마, P국 등 해외 선교지로 보내질 예정이다.

'나눔의 집'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항노 권사는 "광림교회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이번 달에도 미얀마와 우간다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티셔츠, 샌들, 운동화 등 다양한 물품을 담아 네 박스를 보냈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광림교인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도 임원전지훈련 중 "따뜻한 집을 통해 전달된 의류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 안 입게 된 깨끗한 옷을 계속 후원해달라고 지난 설교 시간에 광고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옷 400여 벌을 선교에 써 달라고 기증해주셨습니다. 이런 헌신은 참으로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라고 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제 '따뜻한 집'은 '나눔의 집'으로 이름을 바꿔, 옷장 속에 보관해온 입지 않은 옷들을 계속 수거할 예정이다. 광림 교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

- 의류 물품 취합 장소 : 광림교회 본당 지하주차장 <나눔의 집> 수거함 / 광림사회봉사관 2층 엘리베이터 옆 수거함
- 문의 : 이항노 권사 010-3722-8208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신앙 간증

새롭게 세워지는 청년 속장의 다짐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광림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청년부 내 교구 중 하나인 2교구에서 01또래 새내기들을 맡게 되는 새내기 속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2년간 한 속장님의 도움으로 많은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속장님의 헌신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속장님 덕분에 청년부 목요예배인 <쉐키나>와 청년부 토요 성경공부 모임인 <비전 트리니티>를 꾸준히 나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속장님은 저에게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해외선교와 교육선교를 권유해 주셨고, 선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품고 헌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헌신하신 속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저도 속원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속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의 예비속장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였고, 이제 속장의 첫 걸음을 내딛어 가는 중입니다.

저는 속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속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속장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속원들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역에 참여하길 권유하며 속원들의 영적 성장이 있길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와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을 속원들이 이곳에 잘 정착하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처음 올라왔을 때 청년부 선배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속원들에게 사랑을 베풀 차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속원들의 중심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속회는 이제 청년부로 갓 올라온 새내기들의 속회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속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힘들 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중보 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방승언 성도(청년부)

"2020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를 위해 새로 헌신할 각 위원회 위원장들의 비전

중등교육위원회 서명관 장로 :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광림의 중학생들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힘과 능력은 미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21세기 복음의 상속자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무릎꿇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와 가정, 학교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말씀의 기초 위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영어예배 박남규 권사 : 영어예배부는 영어에 익숙한 국내 어린이들과 오랜 해외 거주로 영어예배에 익숙한 많은 외교관 및 해외상사 주재원 자녀들이 귀국 후 단절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부서입니다. 한국 교회학교를 세우기 위한 동력을 영어예배부에서 찾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영어예배부가 전도의 통로가 되고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잘 돌보겠습니다.

음악위원회 장대진 장로 : 2020년, 광림교회 모든 성가대가 교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나 양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숙을 이루고, 순종과 거룩한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나사렛성가대 김일환 장로 :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성가대원으로 택정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하기에 합당한 심령과 육체를 갖추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에 지체치 않고, 주님과의 소통을 위한 기도 시간을 정하여 실천하며, 예배 참여를 최우선 순위로 드리는 선택받은 성가대원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방송문화선교위원회 강승구 권사 : 현재 미디어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세계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는 시대에 광림교회 역시 영상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선교의 최선봉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영상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방송문화선교위원회의 선교적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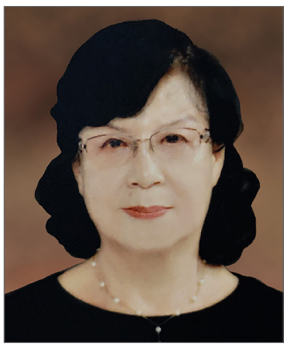
경조위원회 송병제 장로 : 2020년 성도들의 삶 가장 가까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작년 창단된 라파엘 조가 찬양단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경조 자리마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교구와 선교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경조사역이 봉사를 넘어 치유와 회복,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드온선교위원회 박영노 장로 :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전에 맞추어 기드온 선교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교우들의 주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는 다소 힘들지만,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처음 마주치는 주차안내원들의 기쁨과 감사의 얼굴을 통해 목사님의 목회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것이 소망과 각오입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이화열 권사 : 광림교회의 모든 선교사역을 함께하는 여선교회를 부족한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교회 목회철학에 순종하겠습니다. 2020년은 471개체 선교회 부흥을 이루는 일입니다. 선교회원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기쁨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선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선교회 문송철 장로 :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언 16:3) 올해 실업인선교회는 회원을 배가시키고, 서로 경영정보를 공유하며 사업장 심방과 더불어 컨설팅을 하여 서로 큰 유익이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업인선교회원들과 함께하시어 성령으로 도우시고 믿음을 키우시니 더욱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돌리겠습니다.

광림남교회 새가족위원회 고재만 집사 :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은 저에게 주님은 너무도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너무나 큰 시련 앞에서 제게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새가족위원장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광림서교회 여선교회 이광자 권사 : 기도로 섬기는 여선교회 위에 지금까지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 광림제단을 통해 힘차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부족하지만 모든 선교회원들과 함께 기도로 무장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광림북교회 남선교회 홍승방 권사 :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생명, 물질, 시간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살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림북교회에서 저에게 교구장, 경조회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여 작년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신천임원,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직분

연약할 때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친정은 믿음이 없었고 시댁은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방이동에서 광림교회로 처음 전도되어 온 날, 김선도 감독님의 설교에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눈물의 의미가 내가 살아왔던 삶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믿는 믿음이라 교회생활 및 속회와 선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조선희 권사님이 성도의 본보기를 보이시며 인도하셨고, 저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저는 권사님의 권유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연약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를 꾸짖으시던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지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남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마귀는 제일 연약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상계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전이 멀다는 이유로 가까운 교회를 전전하며 신앙생활이 무뎌지게 되었고, 10년이 지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광림교회로 다시 찾아 회개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을 다시 만나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서원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신천집사 직분을 받고 '내가 과연 직분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 기도하며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어머니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잊고 살았던 두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편, 믿지 않는 시댁과 친정식구들의 구원이 제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씩 이루어갈 것입니다.

최미정 신천집사(9교구)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직분을 받고 돌아보니 광림에서의 모든 시간은 감사와 은혜로 가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받았던 사랑부터 사춘기 시절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과 수능시험을 마친 후 친구들과 주차봉사를 하며 폭설로 주차장에 쌓인 눈을 치웠던 기억, 청년부 중창단으로 토요일 새벽마다 병원선교에 참여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목요 쉐키나 기도회에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주일까지 남은 한 주를 넉넉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곤 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속회와 선교회에 참석하면서 각자의 바쁜 삶 속에도 늘 모여 예배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장로님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 역시 상담선교위원회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품에 안고 세 식구가 함께 호렙에 오르며 얻었던 은혜와 기쁨은 광림에서의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 저의 공로가 아닌,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가장 큰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셨던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인 아내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 가운데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부족한 자를 세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더욱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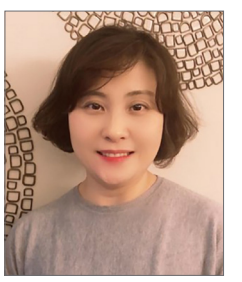
박재욱 신천집사(28교구)

힘들 때 기적 베푸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충성되게 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故 송기산 권사, 김예순 권사)의 손에 이끌리어 광림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남편을 만나 구원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여 2남1녀의 자녀를 두었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월세에 살며 음식점을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현재는 분당에서 4개소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6년째 되던 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가게가 건물주의 부도로 거액의 보증금 모두를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호렙산기도회가 시작되었고, 40일간을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40일이 끝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동부화재 책임자의 마음을 움직여 월세를 천만원씩 감액시켜 주셨고, 그 후 몇 년간에 걸쳐 큰 물질을 다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 권사로 임명되어 책임감을 느끼며, 주의 종노릇을 맘껏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전파를 위해 전도에 힘쓰고, 속회가 부흥되도록 주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송성현 신천권사(15교구)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시간,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광림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사랑부 교사로서, 금번에는 신천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새로 받은 권사직분은 그동안 해왔던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볼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려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은 것 같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예배 후 섬기고 있는 사랑부에는 많은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교사분들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며, 사랑부 학생들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깨닫는다고들 하십니다. 저 역시 미천하지만 그 선생님들의 본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섬김과 나눔을 통해 봉사하고, 광림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돕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다짐하려합니다.

이번에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광림교회 표어인 '복음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이사야 52:7)를 마음에 새기고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우 신천권사(51교구)

"교회가 믿음의 본질 위에 바로 서 세상의 희망과 소망돼야"

신년 대담 | **김정석 광림교회 목사**

김정석 광림교회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교회에서 국민일보와 대담을 하고 "기독교인은 서로 포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포용을 통한 화해에 있다"고 밝혔다. 초갈등사회를 사는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해 김 목사는 "1993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긴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보복 대신 화해의 길을 택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의 여정을 살아가자"고 전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이 화해의 복음을 따라 예수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자"고 권했다.

김정석 목사(오른쪽)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정진영 국민일보 종교국장과 대담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김정석 목사가 지난 10일 국민일보와의 대담에서 "기독교인은 서로 포용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대담=정진영 국민일보 종교국장

-2001년 광림교회 담임목사에 부임해 올해로 20년 차가 됐다.

"성장시대의 정점에 담임목사가 됐다.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성숙해야 할 시점이었다. 성숙을 위해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실속이 없다. 그런 신앙은 금세 무너진다. 혼자만 받은 성령도 한계가 분명하다. 나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넘쳐 흘러야 한다. 나누라는 의미다. 삶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변화된 삶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2000년대 초반 나눔과 섬김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전도'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푯대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본질이 튼튼하게 서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

-광림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있다. 비전은.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이며 전도는 하나님의 꿈을 확산하는 통로다. 규모의 성장과는 다른 의미다.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데 집중하는 근본적인 여정에 나서야 한다. 변화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삶을 통한 선교와 전도가 주는 울림은 크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기쁨과 평화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평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평화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문자적인 '평화'와 '샬롬'이다. 문자적 평화는 조약이나 협약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일시적이다. 샬롬은 절대적인 평화다. 예수 안에 내가 거해야 이룰 수 있는 참 평화가 샬롬이다. 그리스도인은 샬롬을 지향해야 한다. 그동안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 교인을 성숙시켰고 전 세계에 10개의 선교센터를 세웠다. 올해는 잠비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센터를 봉헌한다."

-광림아트센터를 통한 문화선교도 활발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화를 통한 선교도 중요하다. 최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으로 문화선교가 손꼽히고 있다. 오래전 장천홀을 만들었다. 클래식 음악 전문 공연장이다. 5년 전에는 뮤지컬 공연장인 '버닝 부시 처치 홀'(BBCH)도 만들었다. 공연장을 운영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뮤지컬을 본 비신자가 '이곳이 교회였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 교회를 찾았던 이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 문화선교라 해서 꼭 기독교 소재일 필요는 없다. 비신자들이 교회 뜰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문화선교를 했다고 본다. 다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과적이다."

-최근 광림수도원을 새로 단장하셨다. 수도원에 내재된 신앙적 관점은 무엇인가.

"1986년 경기도 광주에 광림수도원을 세웠는데 그동안 수백만 명이 다녀갔다. 수도원은 개인 기도를 중심으로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집회가 자주 열리는 기도원과는 다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며 영성을 충만하게 채우는 공간이다. 새로 단장한 것은 쾌적한 시설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끄는 공간이 바로 광림수도원이다. 이번에 보수하는 데 120억원 가까이 들었다. 광림수도원은 우리 교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신자라면 누구든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다. 한국교회에 열린 공간이다."

-새해 들어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라고 보는가.

"삶이 불안하다. 미래도 불투명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믿음 안에서 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다른 데 의지하면 안 된다. 한국은 마약사범도 많고 술 소비량도 세계 최고다. 바람직하지 않다. 복음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돼야 한다. 내면과 실존의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복음 안에 바로 선 교회만 할 수 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의 절대성 안에 확실히 서야 시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종교사회학자들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면 종교 자체에 관심이 떨어진다고 한다. 사실 그렇다. 뭘 선포해도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내면을 깊이 살피고 돌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면의 문제에 정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좋은 것을 가려내야 한다. 생명의 소리를 선포해야 하고 교인은 이를 들어야 한다.

> **성령의 감동 자신의 만족을 넘어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에 전해야**
> **나눔·섬김 사역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
> **삶과 미래 불안하게 느껴질 땐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해결 가능해**
>
> **지도자 키우는 신학교육 강화하되 교회 현장 경험 배우는 과정 절실**
>
> **교회에서 여는 예술공연 통해 비신자들 자연스레 찾아오도록 문화선교 차원서 활용해볼만**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육이다. 지도자를 키우는 신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 지도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 지도자가 없는 시대다. 교회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길을 제시하는 어른이 없다. 인물이 없다 보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고 인물을 길러내야 한다.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 인물은 어쩌다 생기지 않는다.

그동안 신학교육에 소홀했다. 신학교가 신학만 이야기하고 교회 현장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교역자들이 교회 DNA를 전혀 모른 채 목회현장으로 나온다. 해외 신학교육 기관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후학을 양성한다. 목회자와 선교사가 예비 지도자를 교육하는 식이다. 신학교에서 교회현장을 교육해야 한다.

미국의 릭 워런이나 빌 하이벨스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하기 전 지역조사를 철저하게 했다. 목회 대상과 현장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젊은 교역자들이 교회를 모른 채 현장에 나온다. 교회의 깊숙한 사정을 모른다. 결국, 공허해진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부족해 보인다. 제대로 된 신학교육이 절실하다."

-한국은 초갈등사회에 직면해있다.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 결국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한다. 복음에 충실하자는 의미다.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만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줄어든다. 하나 됨의 역사를 강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복음이 사라진 강단은 교회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교회가 죽으면 국가의 내일이 위태로워진다."

-좋아하는 성경 말씀과 찬양을 소개해 달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다. 모든 게 예수로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길과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찬양은 '저 나사렛 예수 앞에'(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라는 곡을 좋아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는 빠졌다. 아쉽다. 미국인들이 보는 찬송가에는 있다. '저 나사렛 예수 앞에 나 놀라며 서 있네/ 영 죽을 더러운 죄인 어찌 사랑하셨나/ 오 놀랍고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랍고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이라는 가사가 주는 은혜가 크다."

-국민일보 독자들을 위해 덕담을 부탁드린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다.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사실 언제나 위기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정리=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2020년 1월14일자 국민일보에 게재된 김정석 담임목사의 신년대담을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편집인 김대영 | 위원장 박영준 | 간사·편집디자인 이화목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net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